

Research Center

한투의 아침

■ Today's Focus

4월 스타일 아이디어: OPEC과 리스크

■ 기업/산업분석

한국전력, 휴온스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서진시스템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현대로보틱스 외 5개 종목

■ 국내외 금융시장 및 수급 동향



투자전략 | 박소연
해외주식 | 백찬규
경제분석 | 박정우

시황분석 | 김대준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채권분석 | 오창섭

계량분석 | 안혁
중국시장 | 최설화
크레딧분석 | 김기명

스몰캡전략 | 정훈석
베트남시장 | 부쑤언토
해외채권 | 정영록

유동성분석 | 송승연
글로벌기업 | 정희석

자산배분전략 | 정현종
글로벌기업 | 김시우

4월 스타일 아이디어: OPEC과 리스크

1분기 시장에서 산업재, 에너지 강세. 유가 상승을 긍정적으로 반영
 OPEC 지정학 리스크 고조. 이란, 이라크, 베네수엘라 산유량에 영향
 추천 스타일: 유가 상승 수혜주.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현대중공업 관심

1. 양호한 시클리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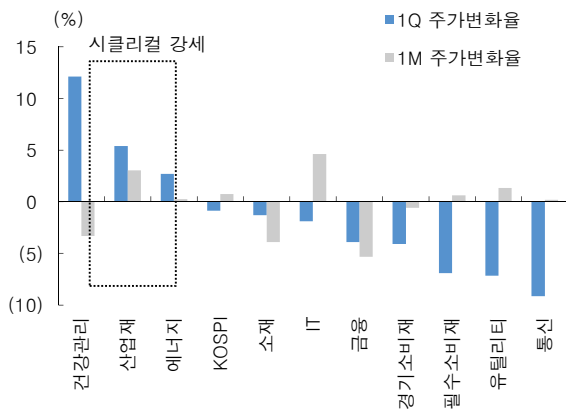
1분기 시장에서는
산업재, 에너지 강세

어느새 4월이다. 그리고 새로운 분기다.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일 지 고민해 봄직한 시기다. 일단 과거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흐름이 분기가 달라졌다고 급변하진 않기 때문이다.

1분기 시장은 한마디로 어려웠다. 미 증시의 플래시 크래시로 변동성이 빠르게 확대됐다. 미국의 통상 압력도 더해졌다. 시장 전반에 약세 압력이 만연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상승했던 업종이 있다. 산업재, 에너지 등 시클리컬 업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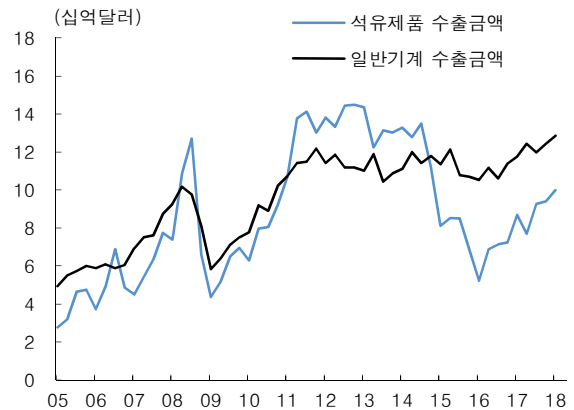
강세 이유는 명확하다. 매출이 늘어서다. 수출 실적이 말해준다. 에너지는 유가 상승에 따른 단가 효과가 긍정적이었다. 산업재는 글로벌 설비투자 재개가 호재였다. 수출엔 잡히지 않지만 조선도 LNG선을 수주하면서 턴어라운드를 맞이했다.

[그림 1] 코스피 업종별 수익률



주: 3월 30일 기준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석유제품과 일반기계 수출금액



주: 분기 합계
 자료: KITA, 한국투자증권

2. 유가와 지정학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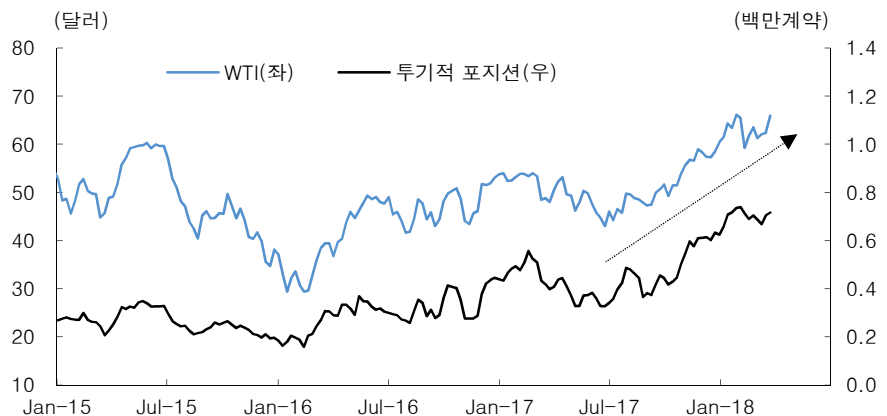
유가 상승세는 좀 더 지속될 전망

모든 변화는 유가에서 시작됐다. 특히 WTI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고지를 돌파한 게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2015년 고점이던 60달러가 현재의 상승 추세에선 저항선이 아닌 지지선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유가는 60달러를 저점으로 움직일 것이란 컨센서스가 형성됐다.

작금의 유가 상승세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원유 시장의 펀더멘털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예전과 다른 건 글로벌 원유 수급이 공급에서 수요 우위로 전환했다는 사실이다. 경기 회복에 기인한 수요 증가와 OPEC 감산 합의가 이끌어 낸 공급 감소가 유가를 끌어올린 핵심 동력이었다. 덕분에 유가 상승에 베팅하는 투기적 포지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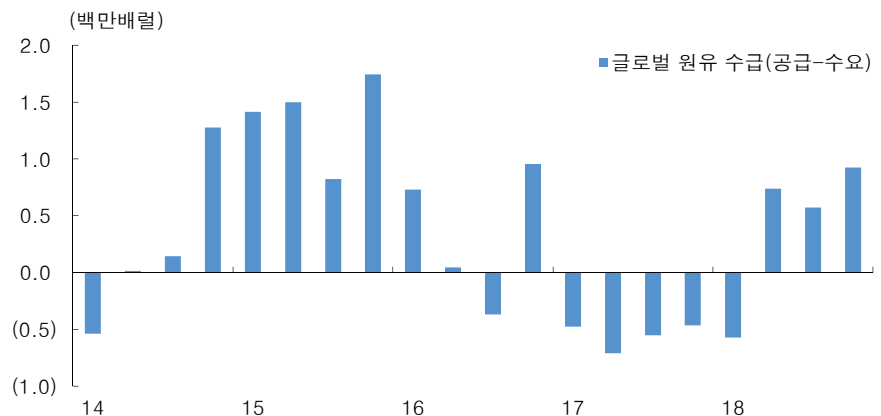
다만 2분기에는 유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EIA의 3월 단기 전망에서 원유 수급이 다시 공급 우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예상 때문이다.

[그림 3] WTI 유가와 투기적 포지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4] 글로벌 원유 수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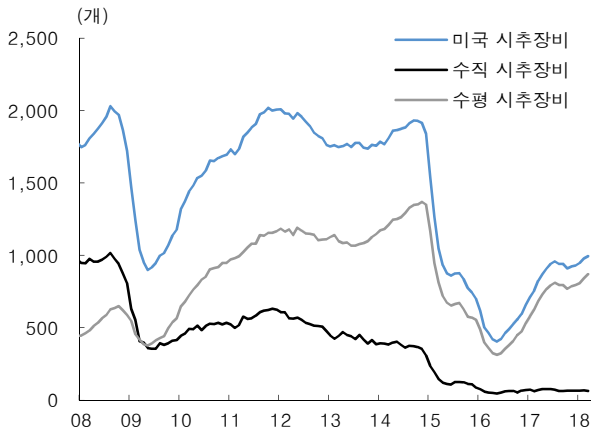


주: 2018년 3월 기준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미국 셰일오일의
손익분기점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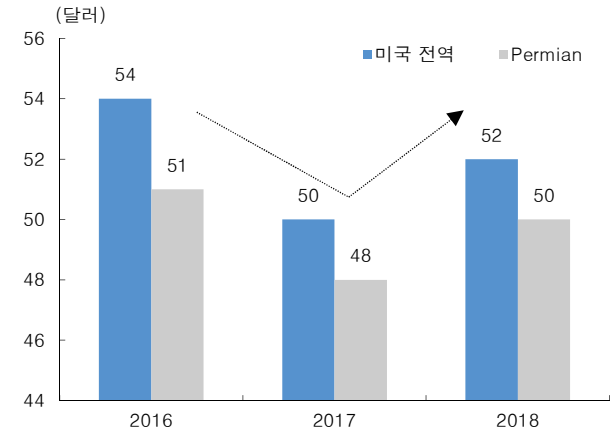
물론 그럴 수 있다. 원유 시장의 스윙 프로듀서로 자리매김한 미국이 생산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올해 미국 셰일오일의 평균 손익분기점은 52달러로 작년보다 높다. 비용 부담이 다소 높아진 영향에 급격한 공급 증가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최근 미국 내 시추장비도 소폭 감소했다.

[그림 5] 미국 시추장비 현황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6] 미국 셰일오일 손익분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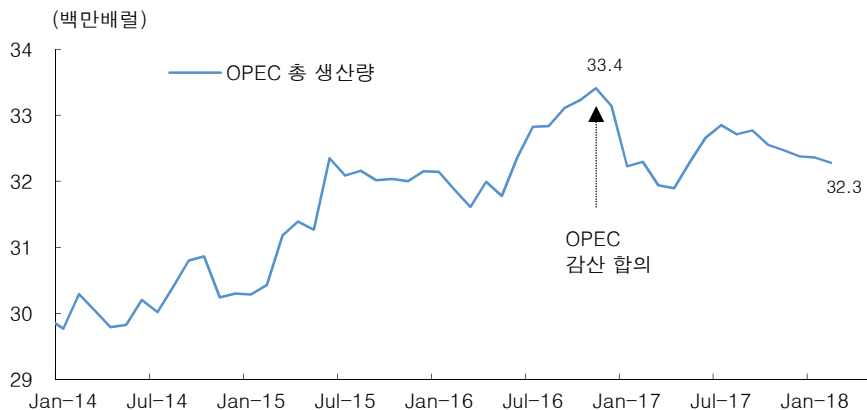
자료: Dallas FRB, 한국투자증권

**사우디아라비아는
감산 합의 연장 지지**

OPEC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도 유가 상승을 선호하고 있다. 하반기 국영회사 아람코의 IPO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의 바람대로 아람코 가치가 2조달러를 상회하려면, 유가는 최소 70달러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다. 따라서 사우디는 6월 OPEC 정례회의에서 감산 합의 연장을 강하게 주장할 전망이다. 원유 시장도 사우디의 의지를 가격에서 완전히 배제하진 않을 것이다.

한편 이번 분기에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이슈가 있다. 바로 지정학 리스크다. 그 동안 유가는 산유국의 불안 요소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번에도 과거와 다르지 않다. 똑같이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림 7] OPEC 생산량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볼튼 보좌관 임명으로
이란 지정학 리스크 고조**

첫 번째로 주목할 국가는 이란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존 볼튼 전 UN대사를 임명했다. 초강경파로 알려진 볼튼의 등장으로 미국의 중동 정책, 특히 이란에 대한 스탠스가 급변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볼튼 신임 보좌관은 9일부터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을 총괄할 예정이다. 매파적 색채를 반영해 이란에 대해 강경한 기조를 고집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오바마 정부와 이란이 합의했던 핵 협상을 폐기하자고 주장할 수 있다.

이란 불확실성은 원유 공급에 부정적인 변수다. 이란은 OPEC 회원국 가운데 산유량 3위다. 2월엔 일간 383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했다. 그런데 미국이 핵 협상을 파기하고 경제 제재로 다시 선회한다면 이란의 원유 생산량은 급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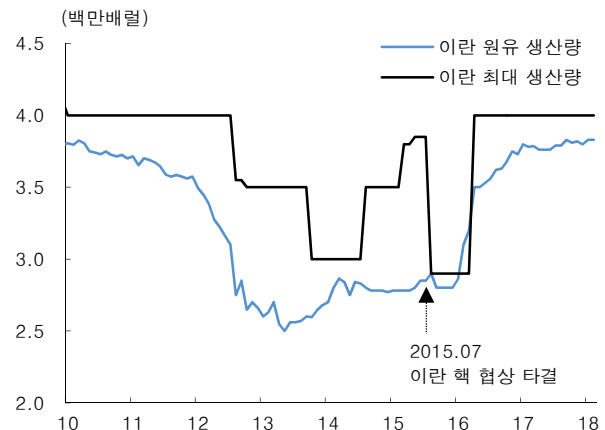
만약 합의가 도출된 2015년 7월로 회귀할 경우, 산유량은 지금보다 100만배럴 정도 감소할 수 있다. 전술한 EIA의 공급 우위 전망을 백지화하는 중요한 변수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수송 리스크는 덤으로 따라오는 유가 상승 요인이다.

[그림 8]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튼 임명



자료: Google, 한국투자증권

[그림 9] 이란 원유 생산량과 최대 생산량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표 1> 이란 핵 협상 일지

날짜	내용
1979년 02월	이란, 이슬람혁명 발생
1992년 11월	CIA, 이란 핵 개발 경고
2002년 01월	미국, 악의 축(이란, 이라크, 북한) 발언
2005년 06월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이란 핵 개발 주장
2006년 12월	UN, 이란 제재 결의안 채택
2010년 02월	이란, 우라늄 농축 20% 시도
2011년 09월	이란, 부셰르 핵발전소 가동
2012년 02월	카메이니 최고 지도자, 핵무기 보유 일축
2012년 09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란 공격 시사
2013년 08월	이란, 로하니 대통령 당선
2015년 07월	이란, P5+1 핵 협상 최종 합의
2017년 10월	미국, 이란 핵 합의 불인증
2018년 05월	미국, 이란 핵 합의 갱신

주: 이란 핵 합의 갱신일은 5월 12일
자료: 언론보도, 한국투자증권

**이라크 내 쿠르드족
불확실성 지속될 것**

두 번째로 살펴볼 국가는 이라크다. 이라크는 최근 20년간 중동 내에서 전쟁 불확실성에 가장 많이 노출된 나라다. 1990년 걸프전을 시작으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2014년 IS의 모술 점령까지 10년 주기로 국토가 망가졌다. 이 과정에서 원유 생산도 동시에 중단됐다.

현재 이라크는 OPEC 내 산유량 2위를 차지한다. 2월 기준으로 일간 443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한다. 최대 생산능력의 94%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라크 정부는 계속해서 산유량을 늘려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다시 한번 군사적 불확실성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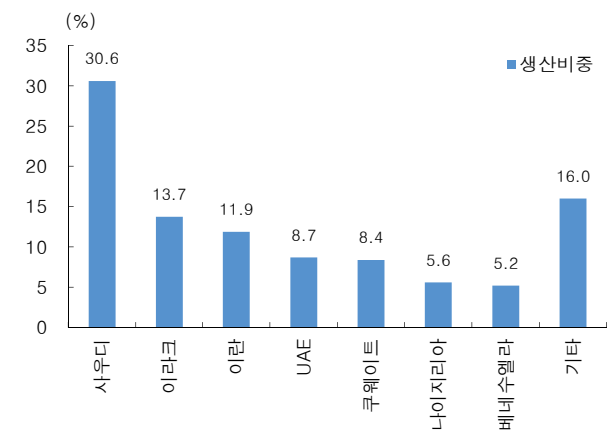
이번에는 쿠르드 족이 문제다. 쿠르드 족은 불행한 민족이다. 십자군 시대부터 현 시대까지 중동 평화에 기여했지만, 보금자리 하나 없이 탄압만 받고 있다. 최근엔 터키, 이라크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이라크 거주지역엔 키르쿠크 유전이 있다. 이곳에서 군사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원유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10] 이라크 내 쿠르드 거주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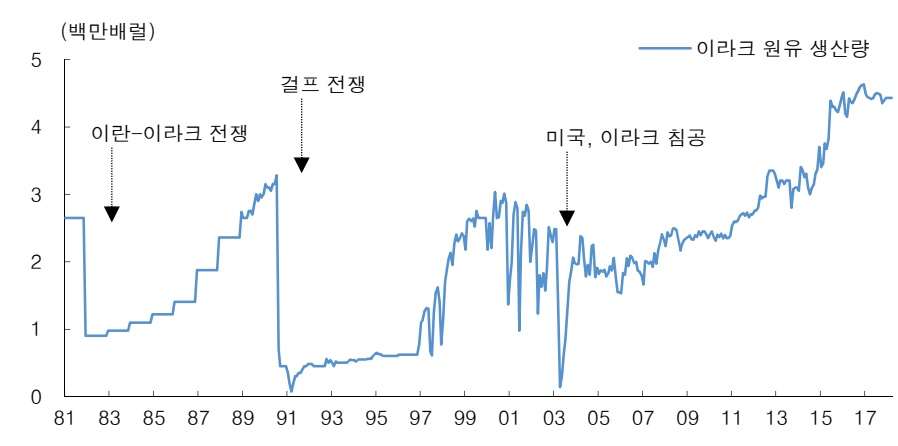
자료: Google, 한국투자증권

[그림 11] OPEC 국가별 생산비중



주: 기타는 앙골라, 리비아, 알제리, 카타르, 에콰도르, 가봉, 적도기니의 합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2] 이라크 원유 생산량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베네수엘라의 정정 불안
조기 대선 앞두고 고조**

마지막 국가는 베네수엘라다. 원유 매장량 1위 국가인 베네수엘라는 5월 20일에 예정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정 불안이 최고조로 치달을 전망이다. 특히 차베스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거의 바닥인 상황이다. 저유가에 따른 경제 파탄과 야당에 대한 정치 유린이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은 최악이다. 만기 10년 이내인 부채 규모는 이자를 포함해 461억달러인데, 상환 능력은 전무하다. 국가 신용등급은 이미 디폴트다. 돈을 구하기도 어렵다. 미국의 경제 제재로 원유 수출은 대부분 막힌 상황이다. 암호화폐 페트로 판매를 통한 자금 조달도 여의치 않다. 2,000%에 달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어디에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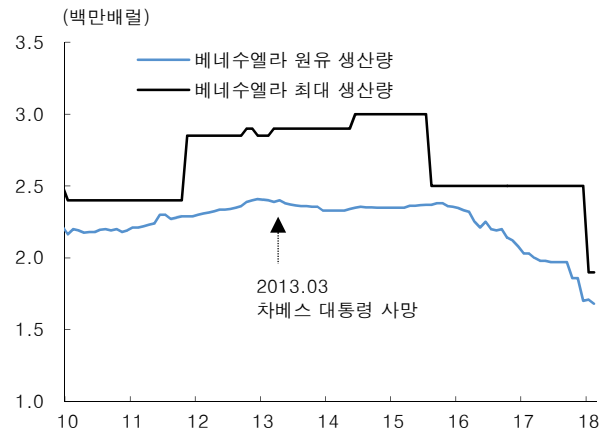
과거 아랍의 봄을 촉발시킨 변수가 경제 위기였다는 점에서 베네수엘라도 동일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5월 대선 전후로 불확실성이 폭증할 전망이다. 사실상 원유 시장은 그 전부터 베네수엘라 불확실성을 선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13]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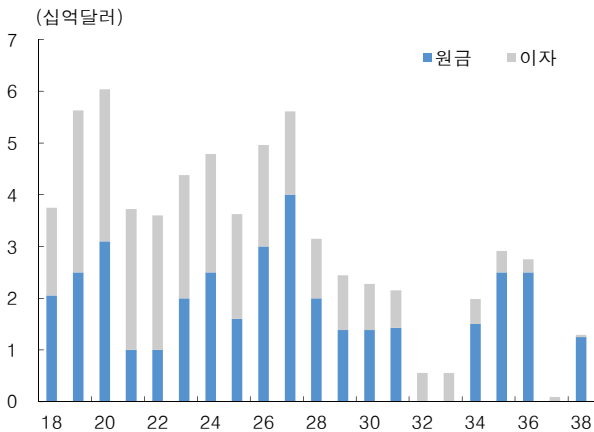
자료: Google, 한국투자증권

[그림 14]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 및 최대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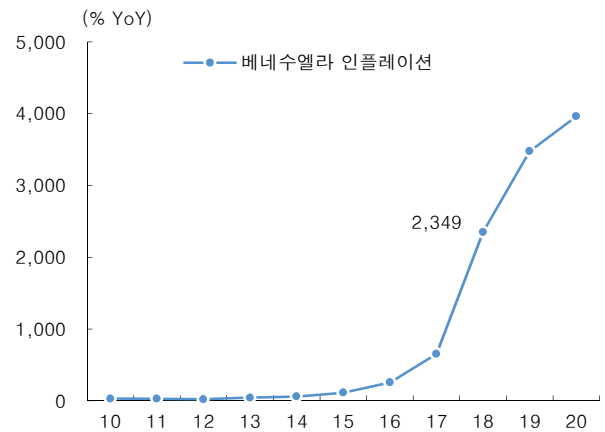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5] 베네수엘라 부채 현황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6]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 전망



주: 연도별 평균치 이용
자료: IMF,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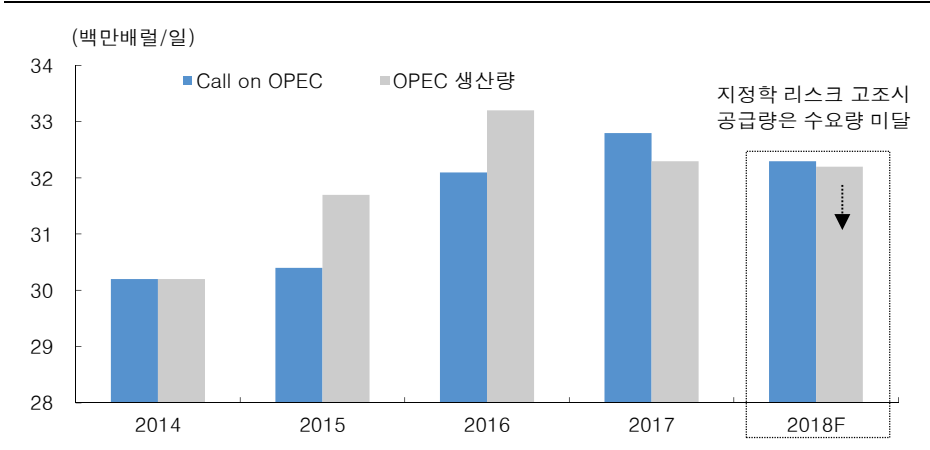
3. 추천 스타일: 유가 상승 수혜주

지정학 리스크로 인해
원유 수급 변할 수 있음

당분간 유가엔 상승 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6월 OPEC 회의를 앞두고 산유국의 지정학 리스크가 가격에 녹아들 수 있다. 특히 요즘처럼 OPEC의 생산량과 필요량이 일치한 상황에서 지정학 리스크가 고조된다면, 시장은 급속도로 공급 부족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 주식시장의 경우, 유가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확인하기 전에 유가 상승을 주가에 미리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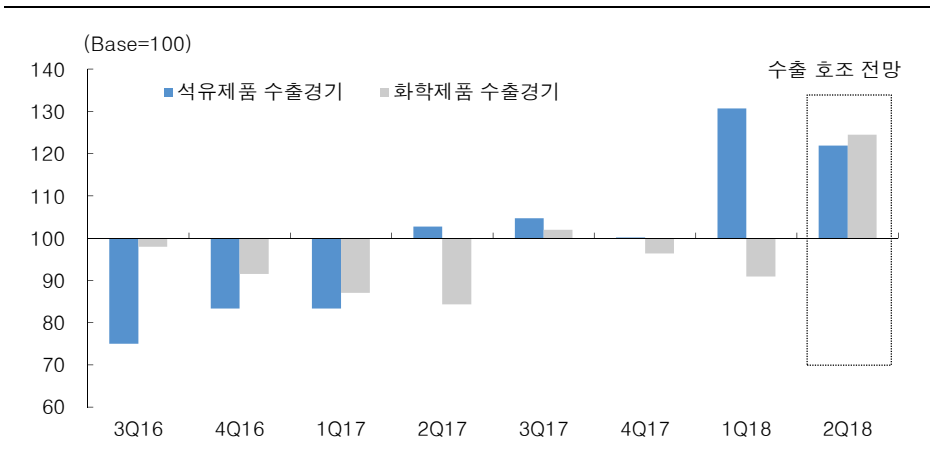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가장 빨리 움직이는 스타일은 유가 상승 수혜주다. 유가 상승이 영업 환경에 긍정적인 정유, 화학, 기계, 조선 등이 해당된다. 동 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침 유가 상승을 반영해 2분기 석유제품과 화학제품의 수출경기도 우호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가격 상승이 펀더멘털 개선을 이끌 수 있는 시점이다.

[그림 17] OPEC 생산량과 필요량



주: Call on OPEC은 원유 수급 균형에 필요한 OPEC 공급량
자료: IEA,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8] 석유제품, 화학제품의 2분기 수출 전망



주: 수출산업경기조사의 세부 항목
자료: KITA, 한국투자증권

추천 스타일:
유가 상승 수혜주

이상을 종합해 4월에는 유가 상승 수혜주를 추천한다. 해당 스타일은 시가총액 3,000억원 이상인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가운데 유가 상승에 민감한 정유, 화학, 조선 등 시클리컬 관련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유가 민감도가 (+)인 업종들도 바스켓에 들어간다. 참고로 종목 리밸런싱은 매년 4월에 진행된다.

유가 상승 수혜주는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현대중공업 등 20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경험상 유가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선 해당 종목들이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사례가 많았다.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일부 종목들은 12개월 후행 PBR 1배 이하인 특성도 있다.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2>에 제시한다.

[그림 19] 유가 상승 수혜주와 상대강도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표 2> 유가 상승 수혜주 20선

(단위: 십억원, 원, %, 배)

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4/2)	수정주가 (4/2)	영업이익 (2017F)	영업이익 (2018F)	영업이익 증가율 (% YoY)	12MF PER (4/2)	12MT PBR (4/2)
A005490	POSCO	28,554	327,500	4,622	5,125	10.9	8.7	0.6
A051910	LG화학	27,355	387,500	2,929	2,977	1.7	14.2	1.9
A028260	삼성물산	26,652	140,500	881	961	9.1	29.1	0.9
A096770	SK이노베이션	19,788	214,000	3,234	3,399	5.1	7.9	1.1
A066570	LG전자	18,083	110,500	2,469	3,176	28.6	9.8	1.4
A011170	롯데케미칼	14,721	429,500	2,930	3,081	5.2	6.0	1.1
A006400	삼성SDI	13,719	199,500	117	428	265.7	14.8	1.2
A010950	S-Oil	13,623	121,000	1,373	1,881	37.0	9.1	2.0
A034220	LG디스플레이	9,196	25,700	2,462	809	(67.1)	13.7	0.7
A010130	고려아연	8,888	471,000	895	1,006	12.4	11.3	1.5
A009540	현대중공업	8,715	126,000	15	(126)	적전	-	0.5
A004020	현대제철	6,712	50,300	1,368	1,468	7.1	7.4	0.5
A078930	GS	5,947	64,000	2,071	2,190	5.7	5.6	0.8
A009830	한화케미칼	4,829	29,300	756	777	2.7	5.4	0.9
A047810	한국항공우주	4,786	49,100	(209)	183	흑전	33.7	4.1
A000720	현대건설	4,649	41,750	986	1,109	9.6	8.6	0.6
A004800	효성	4,214	120,000	771	878	13.8	7.9	1.3
A010140	삼성중공업	2,956	7,580	(524)	(235)	적축	-	0.4
A011780	금호석유	2,919	95,800	263	380	44.6	10.2	1.5
A000880	한화	2,905	38,750	2,159	2,381	10.3	5.5	0.8

주: 시가총액 기준, 음영은 에너지, 화학, 조선 업종 표시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한국전력(015760)

매수(유지)

목표주가: 48,000원(유지)

Stock Data

KOSPI(4/2)	2,444
주가(4/2)	33,250
시가총액(십억원)	21,345
발행주식수(백만)	642
52주 최고/최저가(원)	46,700/30,850
일평균거래대금(6개월, 백만원)	47,981
유동주식비율/외국인지분율(%)	48.9/30.3
주요주주(%)	한국산업은행 외 2인 51.1
	국민연금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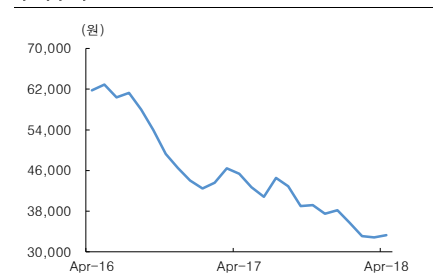
EPS 변경(한국증권 추정치, 원)

	변경전	변경후	(%)
2018F	2,700	3,476	28.7
2019F	5,434	6,800	25.1
2020F	5,725	6,934	21.1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1	(14.7)	(28.4)
KOSPI 대비(%p)	(0.7)	(16.8)	(41.6)

주가추이



자료: WISEfn

강승균

seungkyun.kang@truefriend.com

원전이 돌면 주가는 오른다

다시 한전에 관심을 가질 시점

한전 주가는 얼마나 더 하락할 것 같나? 최근 외국인 투자자에게 받은 메일 내용이다. 전세계 유틸리티 업체 중 한전의 PBR이 유독 낮기 때문이다. 물론 정책 불확실성 확대, 낮아진 원전 이용률 등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역사적으로 valuation 저점(2018F PBR 0.29배)을 지나고 있는 지금, 주가가 이 정도로 하락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원전 이용률 바닥을 지났다

낮아진 원전 이용률이 작년 한전 감익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과거 90%를 웃돌던 원전 이용률은 작년 71%로 낮아지더니 올 1분기 55%로 급락했다. 하지만 하염없이 늘어졌던 원전정비는 이제 마무리되고 있다. 지난 3월 3기의 원전이 가동을 시작했으며, 추가적으로 9기 원전이 5월까지 정비를 끝낼 가능성이 높다. 1분기를 바닥으로 원전 이용률은 다시 높아질 것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저평가 매력 커질 것

기존 목표주가 48,000원(PBR 0.42배)을 유지한다.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과 가시성 회복으로 한전의 저평가 매력이 커질 것이다. 또한 향후 몇 년간 발전믹스 향상, 우호적인 외부환경(환율, 석탄가격)으로 한전에게 긍정적인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아쉬운 1분기 실적에 실망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우호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매출액(십억원)	60,190	59,815	61,015	61,367	62,419
영업이익(십억원)	12,002	4,953	4,425	7,572	7,721
세전이익(십억원)	10,513	3,614	3,255	6,379	6,504
순이익(십억원)	7,049	1,299	2,232	4,366	4,451
EBITDA(십억원)	20,963	14,727	14,431	17,601	17,776
순차입금(십억원)	48,584	51,253	48,987	47,663	47,564
영업이익률(%)	19.9	8.3	7.3	12.3	12.4
ROE(%)	10.2	1.8	3.1	5.8	5.7
배당수익률(%)	4.5	2.1	2.7	4.5	4.5
EPS(원)	10,980	2,023	3,476	6,800	6,934
(EPS 증가율, %)	(47.0)	(81.6)	71.8	95.6	2.0
BPS(원)	111,725	111,660	114,236	119,536	124,970
DPS(원)	1,980	790	900	1,500	1,500
PER(x)	4.0	18.9	9.6	4.9	4.8
PBR(x)	0.4	0.3	0.3	0.3	0.3
EV/EBITDA(x)	3.7	5.2	5.0	4.0	4.0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휴온스(243070)

보톡스와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레벨업

최종 목적지는 한국의 Allergan

글로벌 제약사 Allergan의 성장 역사에서 휴온스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대표품목이 없었던 휴온스는 보톡스와 안구건조증 신약을 기반으로 18~24년 매출액이 연평균 19% 증가해 상위 제약사로 도약할 전망이다. 또한, 지속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다. Allergan이 지난 10년간 매출이 연평균 21% 증가하며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한 배경도 대표 제품의 성공(보톡스, 안구건조증 치료제)과 공격적인 인수합병 때문이다.

미래가 담보된 안구건조증 치료제와 보톡스

휴온스의 차기 성장동력은 안구건조증 치료제(HU024)와 보톡스(휴톡스)다. 환경적 요인으로 안구건조증 환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중효과가 있는 HU024는 기존 치료제 대비 많은 환자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보톡스 역시 미용에 대한 관심증대와 적응증 확대로 지난 5년간 시장 규모가 연평균 10% 성장했다. 경쟁 심화 우려가 있지만 국내 업체들이 진출한 시장은 아직 전체 시장의 13%에 불과하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수출확대로 휴톡스 매출은 2020년까지 연평균 47% 증가할 전망이다.

휴톡스로 성장 본격화, HU024는 hidden value

휴온스에 대해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13만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수출 확대에 휴톡스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도 빠르게 늘어날 예정이다. 선진국 진출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은 모멘텀이 될 것이다. HU024는 임상 2상 진척에 따라 value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매출액(십억원)	169	285	322	373	432
영업이익(십억원)	22	35	38	49	57
세전이익(십억원)	20	44	37	48	58
순이익(십억원)	15	34	31	37	45
EBITDA(십억원)	26	43	47	57	66
순차입금(십억원)	13	(9)	(28)	(56)	(98)
영업이익률(%)	12.7	12.4	11.9	13.0	13.3
ROE(%)	16.3	31.4	22.5	23.6	23.7
배당수익률(%)	0.0	0.7	0.6	0.6	0.6
EPS(원)	2,478	5,576	4,934	6,033	7,292
(EPS 증가율, %)	NM	125.0	(11.5)	22.3	20.9
BPS(원)	16,003	20,426	23,589	27,652	34,005
DPS(원)	0	600	600	600	600
PER(x)	23.4	16.1	22.5	18.4	15.2
PBR(x)	3.6	4.4	4.7	4.0	3.3
EV/EBITDA(x)	15.2	12.8	14.1	11.0	8.9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매수(신규)

목표주가: 1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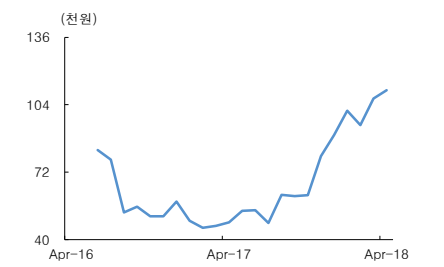
Stock Data

KOSPI(4/3)	2,442
주가(4/3)	110,900
시가총액(십억원)	686
발행주식수(백만)	6
52주 최고/최저가(원)	110,900/45,645
일평균거래대금(6개월, 백만원)	6,281
유동주식비율/외국인지분율(%)	54.8/17.0
주요주주(%)	휴온스글로벌 외 7인 45.1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8.6	83.1	134.1
KOSDAQ 대비(%p)	17.2	49.5	95.3

주가추이



자료: WISEfn

정은영

eunice.jung@truefriend.com

진홍국

hg.jin@truefriend.com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코스닥 하루만에 반등에 성공

- 뉴욕증시는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우려와 기술주들의 급락으로 나스닥지수가 3% 가까이 폭락하는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 2,420P선으로 밀려나며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속 금융투자, 투신 등 일부 기관과 개인 매수에 힘입어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며 약보합세로 마감. 갭 하락하며 출발한 코스닥은 기관과 개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하루만에 순매수로 돌아선 외국인에 힘입어 상승 전환 후 상승폭을 확대하며 870P선을 회복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아시아 제약사 중 최초로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유럽연합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EU-GMP) 인증을 획득한 JW생명과학이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복지서비스 사업을 기반으로 한 성장 전망에 이지웰페어도 신고가를 기록. 더블스타로의 매각에 노조가 찬성함에 따라 경영 정상화 기대감에 금호타이어가 사흘 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으며, 최저임금 상승과 매출성장을 둔화로 급락했던 BGF리테일, GS리테일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사흘 연속 강세를 보임. 또한, 개별 호재와 함께 중국 관광객 회복 및 다음달 징검다리 연휴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항공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연일 강세를 보임. 반면, 1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잇츠한불이 8% 이상 급락했으며, 김정태 회장의 채용비리 연루 가능성에 하나금융지주가 5% 이상 하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용
JW생명과학(234080) ▶61,400(+17.85%)	유럽 수출 본격화 전망에 신고가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당진의 영양수액제 생산시설이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유럽연합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에 신고가 경신 - 종합 영양수액제(TPN) 공장이 EU 기준을 통과한 것은 아시아 제약사 중 동사가 처음으로, 올해 영양수액제에 대한 EMA 시판허가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독일, 영국 등에 제품을 수출할 계획
이지웰페어(090850) ▶11,450 (+16.01%)	복지서비스 사업 성장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선택적 복지 시장 규모가 지난해 2조1,000억원에서 올해 2조4,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기업 복지 플랫폼에 기반한 기업 및 정부/공공기관 대상 복지솔루션 제공업체인 동사의 성장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 아울러, 정부 지원 전기차 공급 확대로 서울, 제주, 부산 등 각 자치단체의 전기버스 도입이 예상돼 BYD의 한국 공식 딜러인 동사의 수혜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작용
항공주	업황 개선 기대감 등으로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티웨이항공이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티웨이홀딩스가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델타와의 조인트벤처 인가 소식에 대한항공이 나흘 연속 강세를 보이는 등 개별 호재와 업황 개선 기대감 등으로 항공주 강세 - 티웨이홀딩스(004870, +5.92%), 한진칼(180640, +5.81%), 진에어(272450, +5.51%), 대한항공(003490, +4.66%), 아시아나항공(020560, +2.24%), 제주항공(089590, +1.88%), 등 강세
화장품 관련주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방한한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 양체츠의 발언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로 인한 보복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돼 중국인 관광객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 - 제이준코스메틱(025620, +7.42%), 연우(115960, +7.40%), 콜마비앤에이치(200130, +5.00%), 현대아이비티(048410, +4.25%), 아모레퍼시픽(090430, +3.60%), 아모레G(002790, +3.34%)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2주 신고가 및 상한가

종목	내용
메가스터디교육(215200) ▶104,500 (+5.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부 온라인 강좌 서비스인 '메가패스'의 성공으로 올해 실적 성장 기대감에 신고가 행진
강스텔바이오텍(217730) ▶17,900 (+5.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평법 시행으로 신약 개발에 필요한 비임상 시험분석 전문업체인 자회사 크로엔의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코스닥 상장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단기 유망종목: 서진시스템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서진시스템 (178320)	36,250 (-5.0)	38,150 (3/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가공 기술 및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방 산업과 고객사 다변화가 동시에 진행 - 상장 첫 해 발생했던 일회성 비용 소멸 및 가동률 상승에 따른 원가 개선 예상 - 기존 사업군인 통신장비, 모바일, 반도체 부품 사업 더불어 ESS 및 자동차 부품의 매출액은 빠르게 늘어날 전망
롯데정밀화학 (004000)	71,000 (-5.6)	75,200 (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법 이익 급증과 전 사업부 실적 호조로 2018년 영업이익이 100% 이상 증가 전망 - 향후 2~3년 동안은 제한적인 증설로 ECH(Epichlorohydrine)와 가성소다 가격은 강세 기조를 지속할 전망 - 주주친화정책 강화에 따라 배당성향은 30%까지 확대될 전망
쌍용양회 (003410)	23,400 (+17.9)	19,850 (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열발전 투자 마무리와 수출량 증가로 안정적 성장 전망 - 내륙과 해안공장을 모두 보유해 전국권 커버와 13개국 수출이 가능하고 대한시멘트 인수로 슬래그시멘트 시장 장악 - 2017년 잉여현금흐름의 60%를 배당으로 환원하는 고배당 정책을 시작하여 2018년 기준 7% 이상의 배당수익률 예상
동화기업 (025900)	33,700 (-9.2)	37,100 (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2분기 본격 가동이 시작된 VRG동화 제2공장이 높은 가동률을 보이기 시작함에 따라 지속적인 외형성장 기대 - 베트남 주택분양 방식이 마감재와 빌트인 가구까지 포함되는 완성형 분양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수혜 전망 - 친환경 제품 중심 믹스 개선에 따른 하우징사업부의 이익률 개선 전망
SIMPAC Metal (090730)	14,200 (+22.4)	11,600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하반기부터 설비를 풀 가동함에 따라 금년 1분기에는 분기 최고 실적 달성 예상 - 중국의 강력한 환경규제에 따른 합금철의 공급 감소로 합금철 가격이 구조적인 강세를 이어갈 전망 - 여의도의 SIMPAC 빌딩 지분과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시가총액의 60%를 상회하는 등 높은 자산가치 부각
TPC (048770)	6,090 (-10.0)	6,770 (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사업 고정비 및 시장 진입비용 반영 완료에 따른 턴어라운드 전망 - 정밀제어를 요구하는 자동차 장비 수요 증가에 따른 모션콘트롤 사업부분의 실적 개선 전망 - 제조업 경기 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 및 정부의 스마트공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구조적 성장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현대오일뱅크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8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현대오일뱅크 (267250)	417,000 (-4.0)	434,500 (2/27)	25,018	2,175	1,170	79,950	5.3
			- 설비고도화에 따른 자회사 현대오일뱅크의 정유 매출 큰 폭 증가 - 올해 안에 유류 정유 생산능력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아시아 spot 정제마진 역사적 고점 돌파 전망 - 3월 현대오일뱅크의 고배당 지급이 예상되며, 현대오일뱅크 상장에 따른 기업가치 재평가 전망				
이마트 (139480)	284,000 (-0.4)	285,000 (2/7)	18,167	613	474	17,013	16.6
			- Affinity Equity Partners 및 BRV Capital Management와의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로 온라인 사업 부문 역량 강화 전망 - 대규모 신규투자를 통해 기존의 협상력과 물류망의 경쟁우위가 확고해짐에 따라 신규 상품의 개발역력 확대 예상 - 외형성장과 함께 손익 개선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는 구간으로 리레이팅 본격화 가능성 상존				
한솔시큐어 (070300)	6,410 (+8.6)	5,900 (12/28)	19	3	2	272	26.1
			- 사물인터넷 생태계의 확장은 eSIM(embedded SIM)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전망 - 보안솔루션 전문기업인 G+D(독일 스마트카드업체인 G&D의 자회사)의 지분 투자에 따라 시너지 효과 기대 - 2018년 하드웨어 보안을 강화하는 TEE(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사업을 재개함에 따라 보안 인식 강화에 따른 수혜 전망				
크린앤사이언스 (045520)	16,250 (+24.0)	13,100 (12/28)	92	11	9	1,446	12.4
			-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변화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공기청정기 수요의 구조적 증가 전망 - 국내 공기청정기 제조사들의 중국 진출에 따른 수혜 전망 - 10월 공기청정기 수요 증가와 신규 고객 유입 대응을 위한 MB(부적포) 증설로 레버리지 효과 기대				
SK텔레콤 (017670)	237,000 (-11.2)	267,000 (12/28)	17,753	1,757	3,033	42,955	5.5
			- IPTV 수익호전, 사물인터넷 가입자 증가, 5G 서비스로 성장성이 두드러질 것 - 콘텐츠 이용 확대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 증가는 요금상향으로 이어져 손익에 긍정적 - SK브로드밴드, SK플래닛, SK하이닉스 등 자회사의 지분가치 상승, 배당 매력				
이엠텍 (091120)	17,950 (+2.0)	17,600 (12/28)	191	14	10	659	26.4
			- 국내 유일의 BA(Balanced Amature)스피커 생산 업체로 스피커 활용기술 발전에 따른 수혜 전망 - 지난해 베트남 공장 증설과 자동화 설비 확대를 통한 생산성 확대와 인건비 절감 예상 - 갤럭시노트8과 V30 출시로 하반기 마이크로스피커와 리시버 관련 매출 증가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이마트, SK텔레콤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및 수급 동향

한국시장 주요 지표

한국 주요지수	4/3(화) 증가	등락률(%)			
		1D	5D	1M	YTD
KOSPI	2,442.43	-0.07	-0.39	1.68	-1.02
KOSPI200	313.38	-0.20	-0.94	1.63	-3.50
대형주	2,358.02	-0.15	-0.70	1.94	-2.53
중형주	2,769.33	0.26	0.82	0.81	1.25
소형주	2,249.03	0.31	1.26	3.98	10.60
KOSDAQ	872.32	0.52	1.57	1.41	9.26
KOSDAQ150	1,554.13	0.86	1.89	0.39	9.93

수급	4/3(화)	1D	5D	1M	YTD
거래량	KOSPI	487	439	439	389
(백만 주, 기간 평균)	KOSDAQ	717	780	780	968
거래대금	KOSPI	7,472	7,186	7,186	6,985
(십억 원, 기간 평균)	KOSDAQ	4,781	5,250	5,250	6,791

(단위: %, bp)

금리	4/3(화)	1D	5D	1M	YTD
국고채 3년물	2.22	0.00	-2.80	-8.80	8.30
국고채 5년물	2.44	1.00	-3.20	-11.90	8.80
국고채 10년물	2.64	1.50	-5.30	-11.80	17.00
회사채 3년(AAA-)	2.66	-2.20	-2.80	-5.60	11.50
회사채 3년(BBB-)	8.82	-2.20	-4.50	-12.50	3.00

(단위: 원, %)

외환	4/3(화)	1D	5D	1M	YTD
원/달러	1054.71	0.17	1.49	2.59	1.20
원/100엔	993.61	0.43	2.50	2.33	-4.70
원/유로	1300.74	0.16	2.24	2.41	-1.89
원/위안	167.94	0.17	1.54	1.45	-2.32

업종 지수	4/3(화)	등락률(%)			
		1D	5D	1M	YTD
KRX 업종 지수					
자동차	1,653.52	2.5	1.72	0.09	-4.97
반도체	2,634.16	-0.07	-1.38	-2.48	-5.38
헬스케어	4,600.89	0.11	1.16	-3.42	19.65
은행	845.99	-3.18	-6.79	-10.45	-9.7
에너지화학	2,740.75	-0.51	-1.39	-2.09	-0.85
철강	1871.37	-0.91	-3.99	-5.8	-8.85
방송통신	964.91	0.84	1.9	2.13	-6
건설	586.53	0.65	0.76	4	4.58
증권	743.52	-2.22	-2.62	-3.54	4.35
기계장비	575.49	-0.6	-6.45	-1.01	7.53
보험	1767.04	-1.41	-1.76	-6.6	-8.74
운송	632.42	1.46	6.66	7.75	8.86
유통리타	1,241.66	1.29	1.08	-2.41	5.44

업종 지수	4/3(화)	1D	5D	1M	YTD
KOSDAQ150					
기술주	1,897.93	0.77	1.42	-0.45	10.65
소재	1,419.83	-1.29	-2.45	-2.99	-9.59
산업재	296.42	0.21	-2.85	-10.47	-5.25
필수소비재	1,103.95	2.85	3.23	-6.34	8.05
자유소비재	1,419.16	2.60	12.07	24.63	21.39
정보기술	735.43	0.59	-0.20	-2.54	-3.07
생명기술	5,438.64	0.86	2.33	-0.38	15.45
문화기술	2,586.11	0.81	1.38	9.68	15.66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분	개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국가, 지자체)	기타	
유가증권	매수	4,402	1,571	1,552	373.17	128.36	246.6	199.27	18.85	300.85	258.09	46.4
	매도	4,272	1,667	1,525	349.19	120.81	224.15	192.17	19.82	352.42	293.84	52.15
	순매수	129.34	-96.37	-27.22	23.98	7.54	22.45	7.11	-0.97	-51.58	-35.75	-5.75
	2018년 1월 누계	203.16	-123.3	-48.84	44.83	-10.19	31.4	22.65	-4.13	-81.84	-51.56	-31.01
	2018년 누계	1589.18	-469.98	-1,454	-2,852	662.86	887.07	-150.97	-17.81	-242.75	259.8	334.7
코스닥	매수	4,044	494.47	260.55	61.31	18.17	43.32	69.72	4.61	25.53	13.59	25.16
	매도	4,056	411.6	236.26	66.83	22.27	43.9	75.77	3.28	33.65	14.85	71.79
	순매수	-11.94	82.86	-24.3	-5.52	-4.09	-0.58	-6.04	1.32	-8.12	-1.26	-46.63
	2018년 1월 누계	83.28	45.21	-34.58	-25.46	-9.78	2.11	2.53	2.19	2.02	-8.2	-93.92
	2018년 누계	1,883	-823.42	23.37	448.23	-6.82	426.62	-564.63	-62.28	-234.39	16.6	-1083.31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단위: 억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업종	필수소비재	631	은행	-1,002	자동차	518	반도체	-1,018
	화장품,의류,완구	490	반도체	-882	화장품,의류,완구	339	화학	-277
	유틸리티	466	증권	-342	건강관리	132	필수소비재	-165
	운송	429	건강관리	-220	소매(유통)	106	조선	-143
	소매(유통)	252	보험	-177	상사,자본재	53	소프트웨어	-129
주종	한국전력	422	삼성전자	-505	현대모비스	362	삼성전자	-1,046
	아모레퍼시픽	315	KB금융	-362	아모레퍼시픽	166	LG화학	-254
	삼성전기	248	SK하이닉스	-277	현대차	157	하나금융지주	-206
	CJ제일제당	227	KODEX 레버리지	-253	KB금융	104	CJ제일제당	-167
	대한항공	176	신한지주	-242	호텔신라	99	삼성SDI	-152
	넷마블게임즈	168	카카오	-221	기아차	76	넷마블게임즈	-95
	현대차	138	LG화학	-213	롯데쇼핑	69	SK이노베이션	-94
	한진칼	118	하나금융지주	-118	LG생활건강	64	현대미포조선	-88
	KODEX 코스닥 150 레버리지	118	고려아연	-113	SK하이닉스	58	한국전력	-74
	호텔신라	112	미래에셋대우	-108	한국타이어	55	삼성생명	-73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업종	미디어, 교육	115	반도체	-224	건강관리	254	필수소비재	-28
	호텔, 레저서비스	70	화학	-88	IT하드웨어	119	디스플레이	-15
	필수소비재	53	IT하드웨어	-55	호텔, 레저서비스	117	소매(유통)	-12
	상사, 자본재	21	디스플레이	-47	소프트웨어	97	자동차	-12
	소프트웨어	19	건강관리	-30	화장품,의류,완구	78	화학	-6
주종	CJ E&M	83	테스	-64	파라다이스	104	셀트리온헬스케어	-129
	파라다이스	71	포스코켄텍	-59	비에이치	74	텔콘	-34
	바이로메드	67	메디톡스	-55	바이로메드	74	SK머티리얼즈	-32
	풀어비스	55	셀트리온헬스케어	-54	신라젠	61	AP시스템	-31
	에스엠	35	동진씨미켄	-50	젬백스	38	네이처셀	-29
	매일유업	33	에코프로	-42	에이치엘비	37	차바이오텍	-25
	연우	31	엔지켄생명과학	-36	메디톡스	36	안랩	-23
	제넥신	25	컴투스	-32	지트리비엔티	35	삼보모터스	-19
	녹십자랩셀	23	SK머티리얼즈	-31	카페24	26	포스코켄텍	-17
	와이지엔터테인먼트	20	원익IPS	-28	콜마비엔에이치	24	JYP Ent.	-16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락률

KOSPI (단위: 십억원, 원, %)

종목명	시가총액	증가	1D	YTD
삼성전자	308,898	2,406,000	-0.87	-5.57
SK하이닉스	59,551	81,800	0.62	6.93
셀트리온	36,677	299,000	-1.64	35.23
현대차	33,482	152,000	2.36	-2.56
삼성바이오로직스	32,123	485,500	-0.10	30.86
POSCO	28,336	325,000	-0.76	-2.26
LG화학	26,719	378,500	-2.32	-6.54
삼성물산	26,462	139,500	-0.71	10.71
NAVER	25,876	785,000	0.00	-9.77
현대모비스	24,871	255,500	4.50	-2.85

KOSDAQ (단위: 십억원, 원, %)

종목명	시가총액	증가	1D	YTD
셀트리온헬스케어	14,234	103,500	-1.33	-4.7
신라젠	7,167	105,100	0.29	12.4
메디톡스	4,067	719,000	-1.32	48.3
바이로메드	3,786	237,300	5.94	45.3
CJ E&M	3,676	94,900	1.39	-2.9
풀어비스	2,926	242,500	0.71	-2.1
코오롱티슈진	2,896	47,550	0.74	-8.2
로엔	2,782	110,000	-1.17	-2.2
에이치엘비	2,777	76,200	6.28	97.2
스튜디오드래곤	2,764	98,600	1.86	51.7

Global Asset Monitor

글로벌 주식		(단위: %)					
구분	지역/국가	증가	1D	5D	1M	YTD	
지역	MSCI 세계	499.65	-1.22	-0.89	-2.29	-2.61	
	MSCI 선진국	2,038.54	-1.37	-0.83	-2.45	-3.09	
	MSCI 신흥국	1,169.43	-0.12	-1.33	-1.07	0.95	
DM	S&P500	2,581.88	-2.23	-0.25	-4.06	-3.43	
	Dow Jones	23,644.19	-1.90	0.47	-3.64	-4.35	
	Nasdaq	6,870.12	-2.74	-1.75	-5.34	-0.48	
	Russell 2000	1,492.53	-2.41	-1.16	-2.65	-2.80	
	영국 FTSE 100	7,032.57	-0.34	1.60	-2.76	-8.52	
	프랑스 CAC	5,138.40	-0.56	0.85	-3.42	-3.28	
	독일 DAX 30	11,968.97	-1.06	0.70	-3.75	-7.34	
	스페인 IBEX	9,532.80	-0.70	1.49	-3.12	-5.09	
	일본 니케이	21,292.29	-0.45	-0.12	0.52	-6.47	
	홍콩 항셱	30,180.10	0.29	-0.43	-2.15	0.87	
	EM	코스피	2,442.43	-0.07	-0.39	1.68	-1.02
		코스닥	872.32	0.52	1.57	1.41	9.26
		중국 상해종합	3,136.63	-0.84	-0.95	-3.62	-5.16
홍콩 H지수		12,136.67	1.15	0.07	-1.98	3.65	
인도 Sensex		33,370.63	0.35	2.37	-1.99	-2.01	
베트남 VN		1,188.29	-0.70	1.41	5.98	20.73	
인도네시아 JCI		6,229.01	-0.19	0.47	-5.37	-1.99	
러시아 RTS		1,233.29	-0.06	-0.86	-2.25	6.83	
브라질 Bovespa		84,666.44	-0.82	0.34	-1.28	10.82	
멕시코 Mexbol		45,826.64	-0.65	-3.24	-3.62	-7.15	
글로벌 업종	에너지	167.79	-0.09	-1.36	-0.37	-3.83	
	소재	209.95	-0.21	-1.23	-2.66	-2.71	
	산업재	284.83	-0.37	-0.73	-1.24	-2.54	
	경기소비재	256.86	-0.18	-0.68	-1.23	-3.16	
	필수소비재	291.44	-0.08	-0.32	-1.33	-2.71	
	헬스케어	524.23	-0.17	-0.24	-2.90	-0.75	
	금융	178.88	-0.17	-0.80	-2.57	-1.73	
	IT	371.15	-0.29	-1.74	-3.14	2.14	
	통신서비스	169.66	-0.04	-0.77	-1.99	-4.24	
	유틸리티	168.17	-0.16	0.11	3.19	-1.46	

글로벌 환율		(단위: %)				
구분	지수/국가	증가	1D	5D	1M	YTD
지수	달러 인덱스	89.96	-0.10	1.05	0.03	-2.35
	무역가중 달러 인덱스	117.57	-0.18	-0.30	-0.78	-1.26
미주	브라질	3.31	-0.21	0.03	-1.81	-0.02
	멕시코	18.21	0.18	0.93	3.21	7.94
아시아	한국	1,054.71	0.17	1.49	2.59	1.20
	일본	106.19	-0.28	-0.80	0.01	6.12
	중국	6.28	-0.05	-0.01	1.05	3.55
	대만	1.30	-0.38	-0.15	0.97	1.51
	인도	65.04	0.22	-0.10	0.12	-1.79
유럽	유로존	1.23	0.04	-0.77	-0.24	2.52
	영국	1.41	0.12	-0.68	1.53	4.06
	러시아	57.59	-0.20	-0.25	-2.05	0.18

주: 달러 대비

글로벌 채권(10Y)		(단위: bp)				
지역	국가	증가	1D	5D	1M	YTD
미주	미국	2.75	2.36	-2.19	-11.09	34.80
	캐나다	2.12	2.40	-11.80	-8.60	7.00
	브라질(USD)	9.50	0.30	2.60	-6.80	-76.10
	멕시코	7.39	0.00	-0.70	-22.50	-26.90
	유럽	독일	0.50	0.20	-0.50	-15.20
	영국	1.34	-0.70	-7.80	-13.10	15.30
	프랑스	0.72	0.20	-0.80	-19.70	-6.20
	이탈리아	1.79	0.80	-8.10	-17.60	-22.20
	러시아	4.54	1.00	-2.90	14.90	67.30
아시아	한국	2.64	1.50	-5.30	-11.80	17.00
	일본	0.03	-1.50	-0.80	-3.80	-1.80
	중국	3.75	0.70	1.80	-10.80	-15.00
	호주	2.61	0.50	-4.80	-12.80	-2.40
	인도	7.35	-4.40	-4.50	-38.70	2.80

원자재		(단위: %, USD/oz, bu, MT)				
구분	지수/상품	증가	1D	5D	1M	YTD
지수	S&P 원자재 지수	445.07	-1.74	-1.84	0.79	0.60
	LMEX 지수	3,204.80	0.18	0.49	-4.04	-6.26
	CRB 지수	436.29	-0.14	-0.21	-1.76	0.91
에너지	원유(WTI)	63.29	0.44	-3.45	3.33	4.75
	원유(Brent)	67.94	0.44	-3.11	5.55	1.60
	천연가스	2.68	0.04	2.52	-0.41	-9.11
금속	금	1,337.60	-0.34	-1.28	1.07	2.16
	은	16.55	-0.73	-0.49	0.96	-3.47
	구리	6,714.00	0.74	0.28	-3.13	-7.35
	아연	3,274.00	-0.30	2.22	-5.21	-1.36
	알루미늄	2,004.50	-1.11	-3.40	-5.98	-11.62
농산물	S&P 농산물 지수	294.22	-0.33	0.81	-4.12	4.28
	옥수수	387.25	0.00	3.54	0.52	7.87
	밀	450.00	0.84	-0.94	-10.00	2.21
	대두	1,042.25	0.65	1.63	-2.68	7.12

변동성		(단위: %)				
구분	지수	증가	1D	5D	1M	YTD
미국	VIX	23.05	-2.41	9.61	17.66	108.79
유럽	VSTOXX	19.27	10.54	-8.55	7.08	42.65
한국	VKOSPI	18.61	1.69	2.48	7.02	54.31

한 눈에 보는 매크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6	27	28	29	30
	美> 3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 (127.7, 131.0, 130.8) 유럽> 2월 M3 통화공급 YoY (4.2%, 4.6%, 4.6%) 3월 소비자기대지수 (0.1, 0.1, 0.1)	韓> 4Q GDP YoY (2.8%, 3.0%, 3.0%)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4.8%, n/a, -1.1%) 2월 도매재고 MoM (1.1%, 0.5%, 1.0%) 4Q GDP 연간화 QoQ (2.9%, 2.7%, 2.5%)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15, 230, 229) 2월 개인소비지수 (0.2%, 0.2%, 0.2%) 3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101.4, 102.0, 102.0)	日> 2월 유효구인배율 (1.58, 1.60, 1.59) 2월 실업률 (2.5%, 2.6%, 2.4%) 2월 광공업생산 MoM (4.1%, 5.0%, -6.8%)
2	3	4	5	6
韓> 3월 수출 YoY(1일) (6.1%, 6.9%, 4.0%) 美> 3월 마켓 미국 제조업 PMI (55.6, 55.7, 55.7) 日> 1Q 단칸 대형 제조업지수 (24, 25, 26) 1Q 단칸 전체산업 Capex (2.3%, 1.1%, 6.4%) 中> 3월 차이신 PMI 제조업 (51.0, 51.7, 51.6)	韓> 3월 CPI YoY (1.3%, 1.4%, 1.4%) 유럽> 2월 마켓 유로존 제조업 PMI (n/a, 56.6, 56.6)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4.8%) 2월 제조업수주 (n/a, 1.7%, -1.4%) 2월 내구재주문 (n/a, n/a, 3.1%)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225, 215) 2월 무역수지(십억달러) (n/a, -56.8, -56.6)	美> 3월 비농업부분고용(천건) (n/a, 185, 313) 3월 실업률 (n/a, 4.0%, 4.1%)
9	10	11	12	13
日> 2월 BoP 경상수지(십억엔) (n/a, n/a, 607.4)	美> 3월 PPI 최종수요 (n/a, 0.2%, 0.2%) 2월 도매재고 MoM (n/a, n/a, 1.1%)	韓> 3월 실업률 SA (n/a, n/a, 3.6%) 美> FOMC 회의록 공개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n/a) 3월 CPI MoM (n/a, -0.1%, 0.2%) 日> 2월 핵심기계수주 MoM (n/a, n/a, 8.2%) 3월 PPI YoY (n/a, n/a, 2.5%) 中> 3월 PPI YoY (n/a, n/a, 3.7%) 3월 CPI YoY (n/a, n/a, 2.9%)	韓> 읍선반기일 금융통화위원회 (n/a, n/a, 1.50%)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美> 기업실적: JP Morgan, Wells Fargo, Citibank 4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n/a, n/a, 101.4)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일)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